



01

제품

- 에어로졸식 살충제는 해충에 직접 또는 생식 장소에 제품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원터치 분사형 살충제는 공간에 1회 분사하면 일정량의 약제가 분사되어 장시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07년 판매된 이후,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일본).
- 살충 성분으로 피레스로이드제를 함유하는 제품이 대부분이며, 원터치 분사형 살충제는 수%~80% 정도로 기존 에어로졸식 살충제에 비해 농도가 높다.
- 에어로졸식 살충제는 용제로 등유를 사용하며, 원터치 분사형 살충제는 미리스틴산 이소프로필알코올, 에탄올을 함유하는 제품이 많다.

02

초기대응 포인트



경구 노출

- 토하게 하지 말고 입안의 물질을 제거하고, 입을 행군다.
- 얼굴, 손발, 의복에 부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샤워 등으로 전신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다.

즉시 진료

- 구역질, 구토, 복통,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경과 관찰

- 헀거나 입을 향해서 소량 분사한 정도로 구강의 위화감만 있는 경우



눈에 들어간 경우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여, 즉시 세안한다.
- 특히 실외용이나 강력 분사 타입은 에어로졸 분사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즉시 진료

- 눈 뜨기 곤란한 경우
- 눈 씻기가 어려운 경우
- 콘택트렌즈가 빠지지 않는 경우

만약을 위한 진료

- 세안 후에도 통증, 충혈 등 있는 경우



피부 노출

- 비누를 사용하여 충분히 씻는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의 감각 이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 피부의 감각 이상에 대하여 비타민 E를 함유한 연고제나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한 식물성 기름을 깨끗이 씻은 후 최대한 빨리 바른다.

만약을 위한 진료

- 세척 후에도 발적, 통증, 발진 등이 있는 경우

경과 관찰

- 부착 부위에 따끔한 느낌 등의 감각 이상만 있는 경우



흡입한 경우

경과 관찰

- 목 통증, 기침,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 두통 등이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 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03

증상



경구

- 목 통증, 구토, 설사, 복통 등
- 피레스로이드제의 대량 섭취는 흥분, 경련,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 잘못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눈

- 자극감, 통증, 충혈, 눈물흘림 등



피부

- 피레스로이드에 의한 피부의 감각 이상(작열감, 가려움), 발적, 통증, 발진 등
- 특히 원터치 분사형 살충제를 방충제로 착각하여 피부에 분사한 경우, 수 분~수 시간 후 국소적인 부위의 따끔함(착각), 저릿함, 열감 등이 나타난다. 감각 이상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정도면 좋아진다.
- 등유 함유 제품에 장시간 접촉한 경우는 2~3도의 화학 손상이 될 수도 있다.



흡입

- 목 및 코 자극, 기침, 숨쉬기 힘들, 구역질, 구토, 두통 등
- 천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발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04

독성

형태적으로 대량 섭취하기는 어렵고 피레스로이드에 의해 심각하게 중독이 될 가능성은 작지만, 입을 향해서 분사하거나 컵 등에 분사하여 고인 액을 마신 경우 등은 잘못 삼켜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피레스로이드 제, 카르바메이트제, 유기인제

독성 치는 성분에 따라 다르며 사람에 대한 중독량은 명확하지 않다.

등유

경구 노출의 경우, 오연하면 1mL 이하로도 심각한 화학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오연한게 아니라면 잘못 삼킨 정도(체중 1kg당 1~2mL 미만)로 중추신경의 억제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



경구

[금기] 토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이유: 피레스로이드는 경련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잘못 삼키면 화학성 폐렴을 일으키기 쉽다.

- 1) 제거 | 입안에 남아있는 것을 뱉게 한다. 소아나 고령자의 경우는 입안을 확인하여 제거하고, 닦아낸다.
- 2) 행굼 | 입을 행구고 가글한다. 가글할 수 없는 경우는 젖은 거즈로 닦아낸다.
- 3) 수분섭취 | 등유 함유 제품은 적극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건 피하는 것이 좋다 (억지로 마시게 하여 구토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밖에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다. 평소대로 하면 된다.



피부

- 1) 제거 | 피부에 부착된 것을 제거하고 닦아낸다. 부착된 의복은 벗는다.
- 2) 세척 | 비누를 사용하여 충분히 물로 씻는다.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의 감각 이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으므로 뜨겁지 않은 물로 씻는다.
- 3) 도포 | 비타민 E를 함유한 연고제 및 식물성 기름(해바라기유, 면실유, 홍화유, 쌀기름 등)의 도포, 피부의 감각 이상이 있는 곳에 세정 후 가능한 한 빨리 바른다.



눈

- 눈을 비비지 않도록 주의하고, 즉시 물로 씻는다.
-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쉽게 뺄 수 있으면 뺀다.



흡입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다.

피레스로이드제

[흡수] 소화관에서 빠르게 흡수된다.

[대사] 주로 간에서 가수분해, 산화된다.

[배설] 주로 소변으로 배설된다.

등유

[흡수] 소화관의 흡수는 극히 적다.



생활화학제품 응급대처 가이드북 I

※ 증상이 보인다면 가까운 병원을 내원해주세요.